

# 정보의 접근점으로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brary of Congress's Subject Headings as an Information Access Point

정연경(Yeon Kyoung Chung)\*\*

### 목 차

- |                 |                         |
|-----------------|-------------------------|
| 1. 서론           | 3. LCSH 활용 현황 및 요구 조사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1 조사 개요               |
|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3.2 웹서베이 분석             |
| 1.3 선행연구        | 3.3 심층 면담 및 전자우편을 통한 분석 |
| 2. LCSH의 특징과 기능 | 4. 결론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주제 접근 도구로서 LCSH의 유용성을 실무 사서들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웹서베이를 통해 University of Washington(UW)의 64명의 도서관 사서들과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CEAL) 회원 도서관 67명 사서들의 LCSH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9명의 UW 사서들과 10명의 CEAL 도서관 사서들과는 직접 만나 심층 면담과 전자 우편 교환을 통해 자세한 의견을 받았다. 조사 결과, LCSH는 주제 접근점으로서 여전히 가치가 있었으며 주제에 관한 다른 관련 자료를 찾을 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CSH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용어와 관련해서 주제명 표목은 좀 더 이용자에게 익숙하고 최신성을 반영해서 주제명 표목간의 명확한 정의와 관계를 보여주어야 하며, 둘째, 구조와 관련해서는 주제명 표목 조합에 있어서 단순성, 용이성,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많은 다른 국가에서 LCSH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어서 그 고급 효과가 상당히 크므로 LCSH에서 주제명 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Tok Island(Korea)"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검색할 때, 결과 레코드의 수나 국제적으로 나오는 관련 문헌의 수, 외교적인 연구 활동 등이 주제명 표목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앞으로 독도 주제명표목과 관련 자료에 관한 학술적인 노력을 배가하고 다른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도 유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usefulness of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LCSH) for librarians as an information access point. Sixty four librarians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UW) and 67 librarians from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CEAL) participated through web surveys about LCSH and 9 librarians from UW and 10 librarians from CEAL joined in-depth interviews and e-mail correspondences. It was concluded that LCSH was very useful for finding other related materials as a subject access point. However, there were two necessary improvements recommended for the LCSH. First of all, in aspect of terminology, subject headings should be more familiar to the public with currency and show clear definitions and relationships. Second, with regard to the structure of LCSH, it should have simplicity, ease of use, and consistency when using combinations of subject headings. Since many other countries are using or adapting LCSH, its effect can be very strong. Therefore, the meaning of "Tok Island (Korea)" in LCSH is very important. It was found that the total number of results in a Google search, which includes the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in the world, diplomatic and research activities relating to "Tok Island(Korea)" were important factors for listing in LCSH as authorized subject headings. So there should be a great deal of efforts in studying and publishing materials related "Tok Island(Korea)" as well as diplomatic and scholarly efforts with sensing movements of other countries.

키워드: 주제명표목,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 접근점, 주제 접근, 독도  
Subject Heading,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 Access Points, Subject Access, Tok Island (Korea)

\* 이 논문(저술)은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前身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013-H00001).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논문접수일자: 2010년 3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4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4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51-72, 2010. [DOI:10.4275/KSLIS.2010.44.2.05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제명 표목(Subject Heading)은 목록 레코드에서 사용하고 주제명 표목표에서 볼 수 있는 주제 개념 용어 또는 어구를 지칭한다(Taylor 2004, 379). 그래서 목록 레코드에서 주제명 표목의 사용 목적은 검색 가능한 저작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어진 주제의 관련 자료를 식별하고 관련 주제 자료의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Taylor 2006, 307). Haykin(1951)은 주제명 표목을 부여하는 4가지 원칙 중 첫 번째가 주제명 표목은 반드시 이용자에게 맞추어져야 한다(Readers Focus)고 했다. 두 번째는 통일성(Uniformity)으로 애매모호하지 않은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는 선택된 용어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Common Usage)을 나타내야만 한다고 했다. 네 번째는 주제는 포함하고자 의도하는 만큼 상세성(Specificity)을 띠어야 한다고 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이용자가 가장 자연스럽게 검색하는 통일된 방식으로 주제명 표목을 상세히 만들어야하며 사서의 이해나 편리보다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주제명 표목 중에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표(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이하 LCSH)는 가장 상세하고 전 주제 분야를 다루는 있는 영어로 된 통제어휘집이다(Chan 2005, 408). 미 의회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서지 레코드에 사용되고 있는 LCSH는 도서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배포하는 서지 통정의 핵심 부분이다. LCSH는 도서관의 모든

장서에 적용되어 이용자들이 유사한 주제의 다양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제명 표목을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동일한 검색 전략과 LCSH를 사용하여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있는 자료의 통일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다.

LCSH는 “red book”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빨강색의 두꺼운 책으로 참고자료 중에서 눈에 띄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Classification Web에서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 의회도서관에서는 매주 갱신되는 내용을 발행하고 있다. 하이퍼링크와 웹 기반의 온라인열람목록 증가로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하나의 자료를 찾으려면 검색 결과에 수록된 LCSH로 유사한 자료들의 목록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LCSH는 원래 19세기 말엽, 미 의회 도서관 장서의 주제 접근을 위한 도구로서 고안된 시스템이었는데 그 이후로 다른 많은 국가와 미국 안의 도서관 목록에서 주된 주제 검색 도구가 되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일반 통제 어휘집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보 검색 환경은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메타 데이터 등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고, 이러한 변화는 LCSH의 개정과 지속적인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LCSH가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주제명 표목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 목록에서만 적용되는 주제 접근 도구만이 아니라 도서관을 넘어서 모든 정보로의 주제 접근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주제 접근 도구로서 LCSH가 실무 사서들에게 제공하는 유용성과 그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는 것이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LCSH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University of Washington(UW)의 도서관 사서들과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CEAL) 회원 도서관의 사서들에게 웹서베이를 먼저 실시하였다. 웹서베이는 UW의 In Library Use Survey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UW 도서관 사서들의 메일링 리스트와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 메일링 리스트로 연구의 취지를 알리는 메일과 함께 웹서베이가 발송되었다. UW의 In Library Use Survey 프로그램은 UW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이용이나 필요성에 대해 학내 커뮤니티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설문을 작성한 후,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집단과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공유하게 되어있다. 웹서베이 실시 기간은 2009년 6월 4일부터 2009년 7월 10일 이었으며 대상자는 UW의 경우, 총 115명이었고 CEAL 회원 도서관의 사서들은 총 251명이었다. 이 중에서 웹서베이에 답변한 사서는 64명의 UW 도서관 사서들과 67명의 CEAL 회원 도서관의 사서들로 총 131명이었다.

일차적으로 웹서베이를 수행한 다음, UW의 사서들과 CEAL 도서관 사서들과는 직접 만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심층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메일로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고 자세

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할 사서들은 웹서베이를 할 때,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사서들은 소속과 연락처, 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UW 도서관의 사서 9명과 CEAL 회원도서관의 사서 10명으로, 총 19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 및 전자 우편을 통한 의견 교환은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면담에서 다룬 내용은 LCSH의 장·단점, LCSH의 개정 과정(추가, 변형, 삭제 등), LCSH의 개선되어야할 점, 구글링(Googling)과 도서관 목록의 비교, LCSH에서의 “독도”란 주제명 표목의 문제, LCSH의 미래 등이었다.

## 1.3 선행연구

국내의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는 정보환경에서 주제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존 주제명 표목표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본 구조를 변형하여 효율적인 정보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명 표목표를 제안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상완 등(1995)은 후조합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한글주제명 검색요어집의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주제명 표목표인 LCSH와 리제철의 주제명 표목표의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주제명 검색요어집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김태수(1997)는 전통적인 주제명 표목표에서 사용된 표목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검색 환경과 한국어에 적합한 후조합색인구조의 주제명 표목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LCSH와 의학주제명표(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리재철의 주제명 표목표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황면 등(2002)은 시소러스 구조 기반 주제명 표목표의 특징과 함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기존 주제명 표목표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한 후, 국내외 주요 주제명 표목표 개발 사례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표의 기술원칙을 분석하여 주제명 표목표가 서지데이터의 주제명부출표목, 검색, 주제명목록과 분류 등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LCSH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한국 관련 주제명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와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 특성을 고찰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LCSH가 미 의회도서관에서 개발한 서구 중심적인 주제명 표목표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측면, 특히 한국과 관련된 주제명이 미미하게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연구가 실시되었다. 먼저 김영귀(1997)는 주제명 표목표로서 LCSH의 기본적인 기능과 특징을 조사한 후, 1995년에 발행된 LCSH 18판을 대상으로 정치와 정부, 언어, 예술, 문학, 그리고 역사부문의 한국관련 주제명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윤정옥(2001)은 LCSH 20판(1997)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명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특히 논쟁이 되는 주제명인 독도, 동해와 대한 해협, 태권도와 합기도, 압록강, 두만강 및 백두산에 대해서는 15판의 해당 주제명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지리명, 인명, 사적명 등 12개의 주제 분야로 구분해 한국과 일본의 해당 주제명의 개수와 분포를 비교하여 LCSH에서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전창호(2004)는 DDC에 나타난 한국, 조선 및 동해 관련 표목을 조사하

면서 LC 온라인 목록을 통해 LCSH에 기재된 조선, 동해, 독도의 주제명 표목을 함께 파악하여 외국의 문헌분류표와 주제명 표목표의 부적절한 한국관련 표기의 정정을 촉구하였다. 남태우 등(2008)은 주제명 표목표인 LCSH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표에서의 독도 관련 용어의 주제명을 파악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표준분류법인 KDC, LCC, NDC와 미국, 일본, 한국의 지명위원회에서 나타난 표목명 '독도'의 기재 현황을 조사하였다. 김정현과 문지현(2009)은 LCSH의 초판부터 30판까지의 독도, 동해 등과 같은 국경 및 영토를 포함하여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과 판별·주제별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LCSH에서 한국관련 주제명이 누락되거나 전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학술문헌들이 LC에 수집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주성과 김태수(1995), 윤혜영(2003), 유영준(2009)은 LCSH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주성과 김태수(1995)는 LCSH의 표목 구조와 시소러스의 용어 구조를 비교하고, LCSH의 대표적인 표목 구조를 시소러스의 색인 구조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전통적인 주제명 표목표의 참조 구조를 시소러스로 변환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윤혜영(2003)은 LCSH 25판에 수록된 주제어의 구조를 분석하여 일관성 없는 도치표목의 사용, 계층 구조 측면에서의 구형식 표목의 문제, 세목의 순서와 내용 전개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유영준(2009)은 신학 분야 학술지 2종을 대상으로 저자가 직접 입력하는 자연어 형태의 색인어와 LCSH의 통제 색인어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정 주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저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색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주제 분야에 특화된 색인전문가의 양성을 주장하였다.

외국에서는 온라인 목록에서 주제 접근 도구로서 주제명 표목과 LCSH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을 전후로 LCSH에 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Frost(1985)는 대학 환경에서 카드와 온라인 목록에서의 주제 검색 패턴을 조사하고 도서관 목록에서 주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분석하였으며, LCSH의 사용과 주제 검색 교수법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Carlyle(1989), Fernandez(1991), Vizine-Goetz와 Drabenstott(1991)는 온라인 목록 이용자들이 입력한 주제어 분석을 통해서 LCSH와 주제 검색 질의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Shubert(1992)는 1980년대의 LCSH에 관한 문헌 분석을 하였는데 주제명 표목의 빈약함, 편견과 최신성 부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LCSH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주제명 표목의 기본 원칙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Drabenstott와 Vizine-Goetz(1994)는 온라인 검색에서 주제 접근을 할 때,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질문에 대해서 목록의 통제 어휘로서 적절한 주제명과 지리명을 선택하지 못했으며, 특히 주제가 인명과 주제명이 결합된 경우는 더욱 취약하다고 하였다. Drabenstott, Simcox와 Fenton(1999)는 성인과 어린이의 절반 정도가 올바른 주제명 표목의 선택, 세구분의 순서 등을 모르고 있어서 주제명 표목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Chan과 Hodges(2000)는 LCSH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게 변화된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방법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용 규칙과 유연한 구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einer-Freiling(2000)은 영어권 국가에서 LCSH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많은 다른 국가가 LCSH의 번역판이나 적용을 하여 주제명 표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Mann(2000)은 LCSH가 연구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개념적인 도구 중의 하나로 주제명 표목을 가르쳐야하며 UF, BT, RT, SA, NT를 사용하는 구조의 활용과 가장 상세한 주제명 표목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Wool(2000)은 배열 순서의 단순화와 후조합 색인이 LCSH의 불필요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후조합을 선호하는 배열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Marshall(2003)은 상세하고 포괄적인 주제명 표목을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주제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목록 이용자들의 연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광의의 용어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고, 일관성이 없다면 이러한 용어를 모으는 기능은 실현될 수 없다고 하였다. Fischer(2005)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 동안의 LCSH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주제명 표목에 있어서 부적절한 연결구조, 표목의 최신성 부족이나 편견, 상세성의 부족이 주된 연구를 차지하였으며 새로운 연구 분야로 주제명 표목의 세분, 매핑, 색인자의 비밀관성, 후조합 등을 들었다. 그리고 LCSH가 온라인 주제 검색 도구로서 확장이나 축소, 상호 적용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용의 용이성과 유연성이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Anderson과 Hoffmann(2006)은 LCSH가 파셋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LCSH의 일관성 없는 구문 규칙, 한 저작의 주제와 함께 공존하는 표목들을 생성하지 못하는 능력, 온라인 목록 안에서 하나의 주제명 표목 아래 세구분을 효율적으로 디스플레이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Garrett(2007)는 온라인 레코드의 주제명 표목에 관한 노스웨스턴 대학교 도서관의 실험 연구를 통해 역사적 자료의 접근을 위해 주제명 표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전문 검색 환경에서도 주제명 표목이 그 가치를 더해 준다고 하였다.

Antell과 Huang(2008)은 트랜잭션 로그 분석과 이용자의 관찰 및 면담을 통해서 주제 검색에서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적시에 하는 교수법과 온라인 교수, 이용자 태깅이 이용자의 검색 성공을 향상시키는 가능한 전략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Calhoun 등(2009)은 온라인 목록에서 좀 더 많은 주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지만, 주제가 풍부한 데이터 요소가 표준 목록 기술 안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주제 접근 도구로서 LCSH의 중요성이나 효용성, 이용 교육의 필요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주제명 표목으로의 선정과 의미, 문제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다른 이용자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 환경 변화에서도 기존의 주제명 표목으로서의 가치를 LCSH가 여전히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바뀌거나 지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일선 사서들의 입장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LCSH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담당하고 LCSH의 한계를 파악하고 LCSH의 개정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도서관의 사서들이고 이들의 생각과 의지가 LCSH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LCSH를 사용하는 미국 현직 사서들의 LCSH에 관한 이해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주제명 표목 중 하나인 “독도”에 관해서 미국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역할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LCSH의 특징과 기능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주제명 표목이란 주제명목록에서 저작의 주제를 표현하는 표목이 되는 단어나 구를 의미한다(사공철 등 1996, 339). 오늘날의 주제명 표목표는 동의어와 동형이의어의 문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용자의 언어 관습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곧 표목을 구성하는 어휘 선정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주제명 표목을 선정할 때는 용어의 통일성이나 용어법, 특정기입의 원칙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표목을 선정해야 한다(최달현 & 이창수 2005, 206-211). 현 정보 검색 환경에서 많은 이용자들은 주로 웹 기반의 검색 엔진을 통해 키워드 검색을 행하는데, 이것은 재현율이 높은 반면 정확률이 낮다. 특히 주제로 정보를 접근하는 경우,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관련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적절한 통제 어휘집, 즉 주제명 표목표를 활용한다면 해당 주제는 물론 필요에 따라

주제의 범주를 확장시키거나 좁힐 수 있어 검색 결과의 정확률과 재현율을 모두 높일 수 있게 된다.

주제명 표목표는 특정 주제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경우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전 주제 분야를 망라적으로 포괄하는 것도 있다. 이 중에서 미 의회도서관에서 발행한 LCSH는 도서관 목록 및 국가서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 접근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LCSH는 1909년부터 부분적으로 발행을 시작하여 2010년 현재 제 31권이 발간되었고,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308,000개 이상의 표목과 참조를 수록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CDS 2010).

LCSH는 미 의회도서관에서 새로운 문헌을 편목할 때마다 필요한 주제명을 추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표목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LCSH 안에는 표목을 만들었던 수백 명의 편목 담당자의 다양한 이론을 반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LCSH 구성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표목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표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도서관의 편목담당자를 포함하여 Subject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s(SACO)의 참여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규 및 변경 표목에 대한 정보는 주간으로 서비스하는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Weekly List』에 수록되어 새로운 판을 발행할 때 반영된다(Chan 2005, 6-12).

LCSH의 색인어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기입(entry) 요소로는 주표목과 분류번호, 범위주기가 있다. 주표목은 하나 또는 여러 단어로 구성되며 단일어 표목은 보통 명사로

단수형을 취한다. 두 단어 표목은 형용사와 명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 어순이나 도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류 번호는 주제명 표목과 미 의회도서관 분류표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제의 다양한 측면들이 분류번호로 괄호 안에 명시된다. 범위 주기는 범위주기를 통해 적용되는 주제의 범위를 명시하거나 관련 표목 간의 차이를 지시한다. 다음으로 LCSH가 사용하는 참조 구조는 표목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1988년부터 표준시소러스 체계를 적용하여 관련된 표목 간에 동의관계(USE, UF), 계층관계(BT, NT), 연관관계(RT), 일반 참조(SA)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목은 다양한 개념들을 단일 주제명 표목으로 조합하는 수단으로 주제세목, 형식세목, 시대세목, 지리세목이 있다(Chan 2005, 9-10).

### 3. LCSH 활용 현황 및 요구 조사

#### 3.1 조사 개요

LCSH에 관한 북미 지역 사서들의 활용도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University of Washington(UW)의 도서관 사서들과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CEAL) 회원 도서관의 사서들에게 웹서베이를 먼저 실시하였다. 웹서베이는 University of Washington의 In Library Use Survey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UW의 도서관 사서들의 메일링 리스트와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 메일링 리스트로 연구의 취지를 알리는 메일과 함께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조사 내용은 첫째, 사서들의 정보 검색에 있어서 LCSH가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 정보를 입수할 때 사용하는 경로, 도서관 목록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검색 방식, 도서관 목록에서 LCSH 링크의 사용 정도, 검색 초기 단계에서 LCSH의 사용 등이었다. 둘째, 사서들의 LCSH 사용에서 느끼는 만족도, LCSH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주요 기능을 정리하였다. 셋째, 사서들이 LCSH를 사용하면서 느낀 주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LCSH의 주요 개정 과정, 검색 의견도 수집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주제 접근 방식의 변화와 함께 온라인 목록과 주제명 표목이 반영해야 하는 부분과 “독도” 주제명 표목에 관한 이해도 및 주제명 표목의 변경과 유지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LCSH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차적으로 웹서베이를 수행한 후, UW의 사서들과 CEAL 도서관 사서들과는 직접 만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심층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메일로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고 자세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할 사서들은 웹서베이를 할 때, 참여 의사가 있는 사서들은 소속과 연락처, 메일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UW 도서관의 사서 9명과 CEAL 회원도서관의 사서 10명, 총 19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 3.2 웹서베이 분석

LCSH에 관한 웹서베이에 참여한 사서는 64명의 UW 도서관 사서들과 67명의 CEAL 회

원 도서관의 사서들로 총 131명이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은 가능한 모두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2.1 사서들의 경력 및 담당 업무

UW 도서관 사서들은 6~10년 경력이 20.97%로 제일 높았으며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은 20년 이상의 경력이 40.30%에 달했다. 또한 담당업무는 UW 도서관 사서들은 대부분이 열람 및 참고봉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은 대부분이 목록 업무와 열람 및 참고봉사, 장서개발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CEAL 회원 도서관의 사서들은 대학교의 동아시아 도서관이 많고 그 도서관에서는 적은 수의 사서가 도서관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UW의 도서관 사서는 담당 업무가 세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의 도서관 형태와 주제 분야는 대학도서관이 91.04%를 차지하였고 주제 분야는 일본학이 47.76%, 동아시아학 일반이 38.1%, 한국학이 38.81%, 중국학이 35.82%를 차지하여 동아시아 도서관의 핵심인 한국, 일본, 중국이 주요 주제 배경임을 알 수 있었다(표 1 참조).

#### 3.2.2 일반적인 정보 입수 경로

UW 도서관 사서들과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 모두 정보를 찾을 때, 구글, 구글 스칼라나 야후와 같은 인터넷 정보검색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목록, WorldCat, Wikipedia 등을 많이 찾아보고 하였다(표 2 참조).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

특성	구분	UW		CEAL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근무 기간	5년 이하	9	14.52%	8	11.94%
	6-10년	13	20.97%	13	19.40%
	11-15년	9	14.52%	5	7.46%
	16-20년	11	17.74%	14	20.90%
	20년 이상	23	37.10%	27	40.30%
업무 분야	수서	11	17.74%	17	25.37%
	편목	16	25.81%	47	70.15%
	공공서비스 / 참고봉사	47	75.81%	42	62.69%
	장서개발	17	27.42%	43	64.18%
	운영 · 관리	9	14.52%	10	14.93%
	기타	9	14.52%	6	8.96%

〈표 2〉 정보검색방법

구분	UW		CEAL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온라인 UW 도서관목록(UW)	56	87.50%	59	88.06%
로컬도서관목록(CEAL)				
WorldCat	47	73.44%	51	76.12%
인터넷포털사이트(예: 구글, 구글 스칼라, 야후 등)	61	95.31%	64	95.52%
인터넷 참고정보원(예: Wikipedia 등)	45	70.31%	41	61.19%
방문, 이메일, 채팅, 전화 등을 통해 다른 사서에게 문의	46	71.88%	30	44.78%
기타: 일반 참고정보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편목사이트(NACO)	32	50.00%	17	25.37%

3.2.3 도서관 목록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검색 방식

UW 도서관 사서들의 경우, 키워드 검색(90.62%), 서명 검색(85.94%), LCSH 검색(73.44%), 저자명 검색(67.19%) 순이었고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의 경우는 서명 검색(98.51%), 키워드 검색(85.07%), 저자명 검색(85.07%), LCSH 검색(76.12%) 순이었다. 이는 CEAL 회원 도서관 사서의 경우, 담당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서명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표 3 참조).

3.2.4 다른 관련 자료를 찾을 때, 도서관 목록에서 LCSH 링크의 사용 정도

설문에 참여한 사서들의 절반 가까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 목록에 있는 LCSH 링크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정도는 UW 도서관 사서는 1.56%,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은 8.96% 정도였다. 그래서 LCSH의 효용성을 아는 사서들은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한 도구로 LCSH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3〉 도서관목록 검색에서의 주된 검색 항목

구분	UW		CEAL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키워드	58	90.62%	57	85.07%
저자	43	67.19%	57	85.07%
서명	55	85.94%	66	98.51%
LC 주제명	47	73.44%	51	76.12%
의학도서관주제명	4	6.25%	1	1.49%
장르/형식	15	23.44%	13	19.40%
지정도서	9	14.06%	1	1.49%
고급검색	28	43.75%	30	44.78%
ISBN/ISSN	16	25.00%	28	41.79%
LC 청구기호	26	40.62%	24	35.82%
듀이 청구기호	6	9.38%	2	2.99%
SuDocs 청구기호	3	4.69%	-	-

〈표 4〉 관련 자료 검색을 위한 LCSH 활용도

구분	UW		CEAL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매우 자주 활용함	31	48.44%	29	43.28%
자주 사용함	16	25.00%	12	17.91%
가끔 사용함	16	25.00%	20	29.85%
거의 사용하지 않음	1	1.56%	4	5.97%
전혀 사용하지 않음	-	-	2	2.99%

3.2.5 처음 검색을 시작할 때, LCSH를 검색하는 정도

UW 도서관 사서들은 처음 검색을 시작할 때, LCSH 검색을 하는 경우가 28.12%(18명),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의 경우는 53.75%(34명)였다. LCSH를 처음부터 검색하는 이유는 적합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LCSH가 대부분의 주제에 있어서 가장 잘 구성되고 짜인 도구이며 이용자들이 찾고 있는 정확한 주제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CEAL 회원도서관의 상당수의 사서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LCSH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색을 시작할 때부터 LCSH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UW 도서관 사서의 경우

71.88%(46명), CEAL 회원도서관 사서들의 경우는 46.27%(31명)에 달했다. 처음 검색할 때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로 일반적인 검색 양식이 키워드나 저자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통제어휘인 LCSH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구글링이 훨씬 편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 특정 분야를 위해서 통제어휘가 항상 친숙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LCSH가 너무 획일화 되어있다는 것을 들었다.

3.2.6 도서관 목록을 검색할 때 LCSH 사용의 만족도

도서관 목록에서 검색할 때 LCSH를 사용하면

서 느끼는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UW 도서관 사서의 경우, 약간 만족한다는 경우가 57.81%(37명), CEAL 회원 도서관 사서의 경우는 58.21%(39명)였고,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28.12%(18명)와 19.40%(13명)에 그쳤다.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15%~23% 정도에 달했는데, 불만족의 원인은 LCSH 검색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원인과 거의 비슷하였다.

### 3.2.7 목록에서 LCSH의 주요 기능

도서관의 목록에서 LCSH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다른 관련 자료를 찾게 하는 기능을 UW 도서관 사서들은 65.62%(42명),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은 55.22%(37명)로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접근점으로서의 정보 검색 기능이 18.75%~23.88%, 정보 조직 기능이 10.94%~17.91%로 나타났다.

### 3.2.8 LCSH에서 필요한 개선사항

LCSH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일 먼저 일반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표목의 사용을 들었

다. 그 다음으로는 표목의 최신성, LCSH 사용의 용이성, 표목의 단순한 구조, 표목의 분명한 정의와 관계, 더 많은 주제명 표목의 부여, LCSH의 사용에 관한 교육 제공이었다.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은 LCSH 사용의 용이성과 더 많은 주제명 표목의 부여, 일반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표목의 사용, LCSH의 사용에 관한 교육 제공을 많이 요구해서 동아시아 도서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었다. 즉, 동아시아인들이 LCSH를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LCSH 안에 동아시아 분야의 주제를 완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이해가 쉬운 표목과 LCSH 사용법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기타 의견으로 LCSH에서 필요한 사항은 주제명 표목 적용의 일관성, LCSH와 연결된 키워드의 제공, LCSH를 훑어보기 기능에서 제공, 일반 용어와의 연계, 복수보다는 단수로 표목 사용, 주제전문가에 의한 주제명 표목 부여, 어휘에서 파셋을 보다 잘 보여주는 방법의 제공 등을 들었다(표 5 참조).

〈표 5〉 LCSH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문

구분	UW		CEAL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LCSH 사용의 용이성	24	37.50%	39	58.21%
표목의 최신성	32	50.00%	37	55.22%
표목의 단순한 구조	30	46.88%	36	53.73%
일반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표목의 사용	33	51.56%	46	68.66%
더 많은 주제명 표목 부여	16	25.00%	31	46.27%
특정 문화나 성별에 편향된 표목 감소	12	18.75%	14	20.90%
이용자 키워드로 표목 대체	9	14.06%	14	20.90%
표목의 분명한 정의와 관계	22	34.38%	32	47.76%
LCSH 사용에 관한 교육 제공	6	9.38%	25	37.31%
기타	16	25.00%	14	20.90%

3.2.9 가장 적합한 LCSH의 선정

영토권 분쟁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 하나를 대상으로 서지사항과 요약, 수십 개의 가능한 LCSH의 예시를 제공하고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LCSH를 3개 선정하도록 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Scramble for the rocks: the disputes over Dokdo/Takesima, Senkaku/Diaoyu, Paracel and Spratly Islands』이고 저자명은 Min Gyo Koo, 발행사항은 Dissertation of UC Berkeley, Dept. of Political Science, 2005,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으로 독도/다케시마 등에 관한 것을 연구한 것이었다.

UW의 도서관 사서들은 주로 Japan-Boundaries -Korea, Korea- Boundaries - Japan, Japan-Foreign relations - Korea(South)를 선정하였고,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은 Korea-Boundaries - Japan, Japan- Boundaries - Korea, Tok Island(Korea) - International Status를 선정하였다. 이는 CEAL 회원 도서관 사서들이 독도와 다케시마의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더 많은 주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UW 도서관의 사서들과는 달리 독도의 주제명 표목이 LCSH에는 Tok Island(Korea)임을 알고 선정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참조). 그러나 실제로 WorldCat에서 이

<표 6> 독도 문헌에 관한 가장 적합한 LCSH의 선정

구분	UW		CEAL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China -- Boundaries -- Korea -- Sources	2	3.12%	4	5.97%
Economic zones(Law of the sea)	5	7.81%	3	4.48%
Fishery law and legislation -- Japan	2	3.12%	-	-
Japan -- Boundaries -- Korea	46	71.88%	43	64.18%
Japan -- Foreign relations -- Korea(South)	25	39.06%	17	25.37%
Japan--Politicsandgovernment--1989-	1	1.56%	2	2.99%
Jurisdiction, territorial -- Japan	13	20.31%	6	8.96%
Korea -- Boundaries -- Japan	45	70.31%	50	74.63%
Korea -- Discovery and Exploration -- French	-	-	-	-
Korea -- Territories and possessions	16	25.00%	17	25.37%
Law of the sea -- Japan	2	3.12%	-	-
Takeshima(Japan)	12	18.75%	14	20.90%
Takeshima(Shimaneken)	-	-	1	1.49%
Territory, National -- Japan	1	1.56%	6	8.96%
Tok Island(Korea) -- Description and Travel	1	1.56%	3	4.48%
Tok Island(Korea) -- International Status	11	17.19%	32	47.76%
Tok Island(Korea) -- Pictorial works	-	-	-	-
Tong Island(China)	1	1.56%	1	1.49%
Tori Island(Japan)	1	1.56%	-	-
Tsusima Island(Japan) -- History	-	-	1	1.49%
Ullung-gun(Korea) -- Description and Travel	-	-	-	-

박사학위 논문을 검색한 결과, 주제명 표목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Dept. of Political Science - Dissertation으로 박사학위 수여기관만이 부여되고 있었는데 이는 학위논문인 경우, 각 대학도서관의 방침에 따라 주제명 표목을 상세히 부여하지 않는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

### 3.3 심층 면담 및 전자 우편을 통한 분석

웹사이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LCSH에 관한 심층 면담지를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9명의 UW 사서들과 10명의 CEAL 회원 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과 전자우편을 통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3.1 LCSH의 장점

첫 번째 장점은 LCSH가 적합한 자료를 찾게 해주고 지속적인 예측이 가능한 색인 시스템으로 특별한 주제명 표목 아래에서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키워드 탐색의 경우, 주된 문제가 너무 많은 검색 결과를 가져오고 관련되지 않은 항목들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인데 통제된 어휘, 상세성과 통일성이 LCSH를 사용한 주제 검색에 유용하므로 키워드 접근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라고 하였다. 특히 더 넓은 주제어나 더 좁은 주제어의 관계를 알고 싶어 할 때, 관련 주제어를 훑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 3.3.2 LCSH의 단점

LCSH의 가장 큰 단점은 이용자의 키워드와

LCSH의 표목에 사용된 용어간의 차이로 인해 검색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가마다 역사적 연대의 통일성이 없어서 역사적인 측면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각 언어의 차이와 표목명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일반 이용자들은 주제명 표목의 구조에 관심이 없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LCSH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유용한지를 모른다고 했다. 이는 목록 사서들조차도 때때로 어떻게 주제명 표목의 순서를 정확히 생성해야하는지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하였다. 또한 LCSH는 카드 목록 환경에서 고안된 것이므로 현재의 정보기술 환경에서는 LCSH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료를 찾기 위한 정보 탐색과 웹페이지 검색은 다르며 사람들은 일찍부터 구글링을 통해 웹 탐색을 먼저 접하게 되므로 이러한 방식을 목록 검색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현상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LCSH를 사용할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표목이 많으며, 주제명 표목을 부여하는 원칙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지리적 구분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끝으로 대부분의 사서들은 LCSH의 사용이 어려우며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3.3.3 LCSH의 개정 과정에 대한 의견

1990년대까지, LCSH 관리자들은 주제 항목을 위한 용어를 변경하지 않는 엄격한 정책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것은 주제명 표목이 바

꾸면 생길수도 있는 혼돈이나 중복을 제거하거나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강요되었는데, 1996년부터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와 접근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용어의 변경을 조금씩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일반 용어나 자연어가 LCSH에서 사용되지 않아 이용자의 자료 탐색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도 있는 LCSH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문화적·성적 편견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LCSH의 주제명 표목의 변경 작업은 미 의 회도서관의 목록정책지원부서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기존 표목의 추가, 변경, 삭제, 표목 및 하위 표목의 결합, 상호참조와 같이 기존 표목을 변경하기 위한 제안서를 검토한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표목을 검토하고 용어, 상호참조, 주기사항, 기술 표제에 대한 호환성, 기존 방식과의 적합 등에 관한 심의를 거치는데 최근에는 LC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사서들도 주제명 표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주제 목록 지침서: 주제명 표목(Subject Manual: Subject Headings)』의 지침에 따라 사서들이 새로운 주제명 표목과 보라 참조를 제안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식적으로 목록사서들에게 그 처리 과정을 공개해서 변경이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많은 사서들이 여전히 LCSH는 매우 엄격하며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변경을 하기 위한 포맷 처리 과정과 변경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표목명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자주 변경되고 용어들 중 상당수가 매우 빨리 사라져버리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새로운 주제명 표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목록 이용자의 다양성으로 주제명 표목의 변경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3.3.4 LCSH의 개선 방안

무엇보다도 LCSH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키워드 탐색 패턴의 적용이었다. 이용자들은 LCSH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신 이용자들은 키워드와 구글 탐색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많고 나은 상호 참조가 필요하며 시스템 개발이 전거 레코드로부터의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LCSH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더 많은 주제명 표목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하나의 자료에 필요한 주제명 표목의 무제한 부여, 새로운 주제명 표목의 추가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제명 표목이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만큼 안 좋으며 부여된 주제명 표목이 너무 세부적이면 다른 가능한 표목들과 자료들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더 많은 주제명을 부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주제명 표목으로 이용자의 키워드를 매핑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이용자 태깅이었다. WorldCat에서도 이미 이용자 태깅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키워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주제명 표목에 매핑하는 것은 LCSH의 활용도를 높이고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에 이용자 키워드와 주제명 표목을 연결할 수 있다면 LCSH가 좀 더 유연해 지고 활용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용자 키워드를 주제명 표목에 매핑 시키는 것은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며 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하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신들만의 어휘를 사용해서 주제명 표목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 저자가 부여하는 주제어의 활용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저자가 자신의 저작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된 어휘집을 사용하여 주제명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록 담당 사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저자가 객관적으로 주제명 표목을 부여하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사서들도 LCSH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정확한 주제명 표목을 부여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였다.

이용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이용자 훈련이 통제된 어휘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LCSH에 대해 이용자를 교육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검색된 레코드에서 LCSH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면대면 교육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온라인 도서관 활용 교육에서 온라인 목록 레코드 안에 있는 LCSH의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3.3.5 구글링 vs. 도서관 목록

일반적인 정보 검색은 구글링이라고 할 만치 거의 모든 사서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 작은 네모난 창에 하나의 용어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구글에도 서지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주제명 표목이 구글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정보의 다양한 질적 차이를 잘 모르고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용자 교육을 통해 정보의 질적 측면을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보의 질과 정확성에 있어서 도서관 목록과 구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용자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3.3.6 LCSH에서의 “독도” 주제명 표목

한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인 독도는 LCSH에 “Tok Island(Korea)”로 되어있다. 이 주제명 표목은 1986년 LCSH의 제 10판에 처음으로 추가되었다. 1986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LCSH는 “Tokdo Islands”이었으며 현재 다른 별명으로는 “Dok-do, Dokdo, Tok-do, Tokdo, Tok-to, Tokto, Tok Islands, Hornet Islands, Liancourt Rocks, Sambong-do, Sambongdo, Sambong Island, Take-shima, Takeshima” 등이 있다. 종종 LCSH에서도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되는데, 독도 주제명 표목의 경우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미 의회도서관은 2008년 7월 16일에 한국의 독도리는 주제명 표목인 “Tok Island(Korea)”를 “Liancourt Rocks”로 변경하고 “Islands of the Sea of Japan” 아래에 두기 위한 회의 개최를 계획하였음이 LCSH Tenta-

tive(Unapproved) List 29(July 16th, 2008)에 그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다(<http://www.loc.gov/catdir/pcc/tentative/twls0829.html>).

비슷한 시기에 일본 정부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의 교사 지침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할 것을 결정해서 이것은 다시 일본과 한국의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다행히 북미 한인 사서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미 의회도서관은 한국의 독도 주제명 표목의 변경 제안을 그만 두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주제에 관한 토의는 미국의 지명 위원회(U.S.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 이하 BGN)의 결정과 이 문제에 관한 좀 더 충분한 국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현재 독도에

관한 LCSH의 주제명 표목은 “Tok Island (Korea)”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 당시 BGN에서는 이미 독도의 표준명을 Liancourt Rocks로, Tok-do는 Take-shima와 동일한 별명으로 되어 있었고, 통치지역까지 “미해결 통치 지역(Oceans)”으로 지정한 상황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표 7>과 같이 2009년 7월 30일에 다시 “한국영토(South Korea)”로 재지정 하게 되었다. BGN은 미국 내 지명과 외국 지명의 표준화를 책임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방 정부 기관과 부처로부터 나온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독도의 지명과 영토권에 관한 견해는 다른 연방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중요한 근거

<표 7> BGN의 지명 검색 결과 화면

지명	국가	ADM1*	위도/경도	유형
Liancourt Rocks(BGN Standard) Dog-Do(Variant) Dogdo Island(Variant) Hornet Islands(Variant) Take-shima(Variant) Take Sima(Variant) Tök-do(Variant) Tok-to(Variant)	South Korea	South Korea(general)	37° 15' 00" N 131° 52' 00" E	islands
Liancourt Rocks(BGN Standard) Chuk-to(Variant) Dog-do(Variant) Dogdo Island(Variant) Hornet Islands(Variant) Take-shima(Variant) Take Sima(Variant) Tök-do(Variant) Tok-to(Variant)	Oceans	Oceans(general)	37° 15' 00" N 131° 52' 00" E	islands

\* 미 연방정부에서 국가 및 지역코드 체계로 개발한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10-4를 기반으로 해당 지명이 상응하는 지역명을 기재한 것임.

\*\* 출처: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GNS Search. (<http://geonames.nga.mil/ggmagaz/gnsquicksearch.asp>).



가 된다고 하겠다.

심층 면담에서 사서들은 원칙적으로 LCSH는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독도 주제명 표목의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SACO는 BGN 형태를 LCSH 결정에 우선적으로 취한다고 되어있지만 더 적합하고 더 많이 현저하게 사용되는 다른 형태의 주제명을 찾게 되면 BGN의 형태 대신에 취할 수 있으며, BGN 또한 분명히 지리명이나 해당 지리명의 다른 형태나 관련 자료가 미국 정부의 지리적인 영토에 관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다른 국가에서 LCSH를 실제로 사용하며 주요 인쇄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고 일반 이용자들도 종종 쓰는 상황에서 영토 문제를 갖고 있는 지리적 주제명 표목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였다. “Tok Island (Korea)”는 미의회도서관에서 예전에 사용된 국제적인 별칭인 “Liancourt Rocks”로 표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작은 섬들의 상위 분류로 “Island of the Sea of Japan”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결과 레코드의 수나 국제적으로 나오는 관련 문헌의 수, 외교적 활동 등이 주제명 표목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 3.3.7 LCSH의 미래

목록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은 LCSH가 웹 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도 LCSH에서 가져온 주제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LCSH를 대중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LCSH를 웹 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SKOS)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므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일반 이용자들도 LCSH의 존재와 유용성에 관해 알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LCSH가 가장 표준화된 통제 어휘집이기 때문에 최신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유용하게 만들어서 정보과정제 과정 없이 계속해서 들어가기만 하는 인터넷 검색 엔진과 도서관 목록이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주제 접근 도구로서 LCSH의 유용성을 실무 사서들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웹서베이를 통해 UW 64명의 도서관 사서들과 CEAL 회원 도서관 67명 사서들의 LCSH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9명의 UW 사서들과 10명의 CEAL 도서관 사서들과는 직접 만나 심층 면담과 전자 우편 교환을 통해 자세한 의견을 받았다.

조사 결과, 많은 사서들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 목록에 있는 LCSH 링크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LCSH를 처음부터 검색하는 이유는 적합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LCSH가 대부분의 주제에 있어서 가장 잘 구성되고 짜인 도구이며 이용자들이 찾고 있는 정확한 주제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처음 검색할 때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로 일반적인 검색 양식이 키워드나 저자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는 것, 통제어휘인 LCSH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구글링이 훨씬 편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 특정 분야를 위해서 통제 어휘가 항상 친숙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LCSH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다. LCSH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일반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표목의 사용, 표목의 최신성, LCSH 사용의 용이성, 표목의 단순한 구조, 표목의 분명한 정의와 관계, 더 많은 주제명 표목의 부여, LCSH의 사용에 관한 교육 제공을 제시하였다. 또한 LCSH 안에 동아시아 분야의 주제를 완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CSH를 사용한 주제 검색은 키워드 접근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며 특히 더 넓은 주제어나 더 좁은 주제어의 관계를 알고 싶어 할 때, 관련 주제어를 훑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LCSH의 단점은 이용자의 키워드와 LCSH의 표목에 사용된 용어간의 차이로 인해 검색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이라고 하였다. LCSH의 개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LC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사서들도 주제명 표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서들이 여전히 LCSH는 매우 엄격하며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변경을 하기 위한 포맷 처리 과정과 변경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사한 용어의 빈번한 출현과 짧은 수명, 목록 이용자의 다양성으로 주제명 표목의 변경은 보다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LCSH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키워드 탐색 패턴의 적용이었

다. 이용자들은 LCSH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신 이용자들은 키워드와 구글 탐색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많고 나은 상호 참조가 필요하며 시스템 개발이 전거 레코드로부터의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LCSH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용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검색된 레코드에서 LCSH의 연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심층 면담에서 사서들은 원칙적으로 LCSH는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독도 주제명 표목의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을 띠고 있다고 보았고 영토 문제를 갖고 있는 지리적 주제명 표목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였다. “Tok Island(Korea)”는 표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작은 섬들의 상위 분류로 “Island of the Sea of Japan”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결과 레코드의 수나 국제적으로 나오는 관련 문헌의 수, 외교적 활동 등이 주제명 표목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LCSH는 최근 정보환경에도 주제 접근점으로서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대부분 주제에 관한 다른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LCSH를 유지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노동 집약적이며 가끔은 정확한 주제 정보를 검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지만 LCSH는 영어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통제어휘집이며 이 도구를 체계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LCSH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을 감안하면 LCSH에서 주제명 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Tok Island(Korea)”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LCSH 주제명 표목이 변경되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명 표목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도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는 물론 독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미 의회도서관은 물론 전 세계 도서관에게 알려 독도가 한국에 속한 영토임을 분명히 하는 외교적이면서 학술적인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잘 만들어진 통제어휘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결합시키는 것은 자료들의 연관성을 제공하고 모든 형태의 자료에 대한 주제 목록의 기본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주제명 표목은 도서관의 서가에 자료를 한 줄로 배열해야 하는 분류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 자료들 사이의 다면적

네트워크와 관계의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다. 주제명 표목은 주제 분야의 연구에 견고한 시작점을 제공해 주며 이를 위해 주제명 표목의 일관성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류 항목과 개념이 시간을 지나면서 수정되고 삭제되고 추가되는 것과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는 주제명표목표의 개발이나 적용이 그동안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주제명표목표의 개발 및 적용이 다시 이루어져서 좀 더 효율적인 주제 접근과 질의어 확장이나 메타 데이터의 풍부한 주제 접근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통제 어휘의 폭넓은 사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웹환경에서 주제 정보 접근 도구로서 LCSH의 활용에 관한 깊이 있는 트랜잭션 로그 분석과 이용자 관찰 및 심층 면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LCSH가 좀 더 효율적인 주제 접근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영귀. 1997. LC Subject Heading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44(1): 237-272.
- [2] 김주성, 김태수. 1995. LC주제명표목표와 시소러스의 색인어 구조 비교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 111-114.
- [3] 김정현, 문지현. 2009.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49-68.
- [4] 김태수. 1997. 주제명표목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4(1): 77-105.
- [5] 남태우, 전말숙, 정연순, 장로사. 2008.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91-310.

- [6] 사공철 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7] 유영준. 2009. 신학학술지의 색인에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37-156.
- [8] 윤정옥. 2001.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56(1): 30-55.
- [9] 윤혜영. 2003. LC Subject Headings 색인에어 구조 분석. 『인문사회과학논문집(중부대학교)』, 7(2): 133-149.
- [10] 전창호. 2004. DDC에서의 한국, 조선 및 동해의 표기 문제. 『도서관문화』, 45(9): 68-73.
- [11] 최달현, 이창수. 2005. 『정보자료의 분류와 주제명』.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2] 한상완, 김태수, 최석두, 이은철, 남태우. 1995. 주제명 검색요어집 개발에 관한 연구. 『도서관』, 50(1): 3-23.
- [13] 황면, 이재선, 한정원, 한인선, 류희경, 송지혜, 김승정. 2002. 시소러스를 도입한 주제명표목표에 관한 연구. 『도서관연구회논문집』, 2002년: 123-138.
- [14] Anderson, James, and Hofmann, Melissa. 2006. "A fully faceted syntax for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3(1): 7-38.
- [15] Antell, Karen, and Huang, Jie. 2008. "Subject searching success: transaction logs, patron perceptions, and implications for library instruction."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8(1): 68-76.
- [16] Calhoun, Karen, Cantrell, Joanne, Gallagher, Peggy, and Hawk, Janet. 2009. *Online catalogs: what users and librarians want: an OCLC report*. Dublin, OH: OCLC.
- [17] Carlyle, A. "Matching LCSH and user vocabulary in the library catalo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0(1989): 37-63.
- [18] Chan, Lois Mai. 2005.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Littleton, CO: Libraries Unlimited.
- [19] Chan, Lois Mai, and Hodges, Thedora. 2000. "Entering the millennium: a new century for LCSH."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9(1): 225-234.
- [20] Frost, Carolyn O. 1985. "Student and faculty subject searching in a university online public catalog" [online]. [cited 2010.1.5].  
<<http://www.eric.ed.gov/ERICWebPortal/contentdelivery/servlet/ERICServlet?accno=ED264872>>.
- [21] Drabentstott, Karen Markey, and Vizine-Goetz, Diane. 1994. *Using subject headings for online retrieval: theory, practice, and potential*. San Diego: Academic Press.
- [22] Drabentstott, Karen Markey, Simcox, Schelle, and Fenton, Eileen G. 1999. "End-user understanding of subject headings in library catalog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3(3): 140-160.

- [23] Fernandez, Cheryl Wise. 1991. "Semantic relationships between title phrases and LCSH."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3(1): 51-77.
- [24] Fischer, Karen. 2005. "Critical view of LCSH, 1990-2001: the third bibliographic essay."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1(1): 63-109.
- [25] Garrett, J. 2007. "Subject headings in full-text environments: the ECCO experi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8(1): 69-81.
- [26]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GNS Search*. [online]. [cited 2010.1.14].  
<<http://geonames.nga.mil/ggmagaz/gnsquicksearch.asp>>.
- [27] Haykin, David Judson. 1951. *Subject headings: a practical guide*. Washington, D. C.: GPO.
- [28] Heiner-Freiling, Magda. 2000. "Survey on subject heading languages used in national libraries and bibliograph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9(1-2): 189-198.
- [29]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online]. [cited 2010.1.12].  
<<http://authorities.loc.gov/>>.
- [30] Library of Congress CDS(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Tools for authority: subject headings*. [online]. [cited 2010.1.11]. <<http://www.loc.gov/cds/lcsh.html#lcsh20>>.
- [31] Mann, Thomas. 2000. "Teaching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9(1): 117-126.
- [32] Marshall, Linnea. 2003. "Specific and generic subject headings: increasing subject access to library material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6(2): 59-87.
- [33] SACO. *LCSH Tentative list*. [online]. [cited 2010.1.11].  
<<http://www.loc.gov/catdir/pcc/tentative/twls0829.html>>.
- [34] Shubert, Steven Blake. 1992. "Critical views of LCSH - ten years later."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5(2): 37-97.
- [35] Taylor, Arlene G. 2004.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 [36] Taylor, Arlene G. 2006.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 [37] Vizine-Goetz, Diane, and Drabenstott, Karen Markey. 1991. "Computer and manual analysis of subject terms entered by online catalog users." *Proceedings of the ASIS Annual Meeting*, 28: 156-161.
- [38] Wool, Gregory. 2000. "Filing and precoordination: how subject headings are displayed in online catalogs and why it matter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9(1-2): 91-10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Young-Kuy Kim, 1997. "The Study of Selection and Scription of Korean-Related Subject Headings i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Silla University Journal*, 44(1): 237-272.
- [2] Joo-Sung Kim, Taesoo Kim, 1995.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s of Indexing Languages between LC Subject Headings and Thesaurus." *Proceedings of The 2nd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 111-114.
- [3] Jeong-Hyen Kim, Ji-Hyun Moon,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ical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49-68.
- [4] Taesoo Kim, 1997. "A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Heading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4(1): 77-105.
- [5] Tae-Woo Nam, Mal-Suk Chun, Yon-Soon Chung, Ro-Sa Chang, 2008. "A Study of the Dokdo Notation Problem in Terms of Library Materials Organiz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91-310.
- [6] Chukl Sakong et al. 1996.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7] Yeong-Jun Yoo. 2009. "Analytical Study on the Index Terms in the Technological Jour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37-156.
- [8] Cheong-Ok Yoon. 2001. "LCSHeui Hankookgwa Ilbon Gwanryeon Jujemyomokeui Bigyo Yeongu." *Doseogwan*, 56(1): 30-55.
- [9] Hye-Young Yoon, 2003. "LC Subject Headings Saekineo Gujo Bunseok." *Joongbu University Inmunsaheigwahaknonmunjip*, 7(2): 133-149.
- [10] Chang Ho Jeon, 2004. "DDCeseoeui Hankook, Josun Mit Donghaeeui Pyogi Munje." *Doseogwanmunhwa*, 45(9): 68-73.
- [11] Dal Hyun Choi, Chang-Soo Lee, 2005. *Jeongbojaryoeui Bunryuwa Jujemyeong*.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2] Sang-Wan Han, Taesoo Kim, Suk-Doo Choi, Eun-Chul Lee, Tae-Woo Nam, 1995. "Jujemyeong Geomsaekyongeojip Gaebale Gwanhan Yeongu." *Doseogwan*, 50(1): 3-23.
- [13] Myun Hwang, Jae-Son Lee, Jung Won Han, In-Sun Han, Hee-Kyeung Ryu, Jee-Hye Song, Seung-Jung Kim, 2002. "Thesaurusreul Doiphan Jujemyeongpyomokpyoe Gwanhan Yeongu." *Doseogwanyeonguhoinonmunjip*, 2002: 123-138.